

주요 OECD 국가의 사회지출과 사회적 성과

Social Expenditure and Social Performance in Selected OECD Countries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요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1. 서론

본 연구는 OECD 주요국가의 일반재정상태, 사회보장재정방식, 그리고 주요 사회지표와의 관계를 군집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일반정부의 재정상황 및 사회보장재정 방식과 사회적 성과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각국의 정치·사회적 환경이 사회보장제도를 변화시키고 경제환경이 재정 환경을 지배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과지표인 국가채무(일반정부채무) 및 일반정부순지출¹⁾ 그리고 공공사회보장지출 등과 사회적 성과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한 상태에서 주요 일반재정 및 사회보장재정지표와 사회적 성과를 군집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어떠한 유형이 발견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군집분석방법으로는 K-means 군집분석을 사용하였으며 통계프로그램은 SPSS v.20을 사용하였다. 군집분석의 기준변수는 모두 최소값이 -1, 최대값이 1이 되도록 표준화하여 분석하였다.²⁾

1) 사회적 성과지표

사회적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는 연구자마다 달리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율, 출산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대표적인

1) 정부가 걷어들이는 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재정수지의 용어로 표현됨. 그러나 재정수지는 양수가 흑자를 나타내고 음수가 적자를 나타냄. 그러나 본고에서 일반정부순지출로 사용하는 지표는 OECD에서 사용하는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의 Net borrowing/net lending이며, 이 지표는 일반정부의 총지출과 총수입의 차액으로서 양수는 재정적자를 의미함. 따라서 본고에서는 부호의 방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자 재정수지라는 용어 대신 덜 일반적인 순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2) Mooi, E. and Sarstedt, M.(2011). A concise guide to market research: the process, data, and methods using IBM SPSS statistics. Springer: Berlin Heidelberg.

사회적 성과로 보고 지표로 사용하였다. 이 지표 중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현재의 정부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합계출산율은 미래의 정부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많은 학자들과 더불어 Esping-Andersen³⁾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수준이 유럽 국가들의 재정건전성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였고,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보육서비스와 육아휴직제도와 같은 여성친화적인 고용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저출산은 미래의 생산인구 대비 부양인구의 비율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서 대부분의 개발국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출산의 문제는 우려하는 바와는 달리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며, 적절한 정책적 개입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⁴⁾도 존재한다. 사회적 성과를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빈곤지표만을 사용하는 경우와 출산율 및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기준으로 하는 두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1) 빈곤지표

- ①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
- ②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

(2) 출산 및 여성경제활동지표

- ③ 합계출산율(TFR)
- ④ 15~64세 여성경제활동참가율

2) 재정지표

재정지표는 일반정부의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OECD에서 제공하는 가장 최근 연도의 국가채무, 일반정부순지출, 국민부담률 등을 사용하였다. 국가채무만으로는 개별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보아 일반정부순지출⁵⁾을 추가로 사용하였다. 일반정부순지출은 일반정부의 지출에서 수입을 뺀 수치로 양(+)인 경우 적자를 의미하고 음(-)인 경우 흑자를 의미한다. 국민부담률은 부채수준과 재정수지의 원인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판단하여 추가하였다. 국민부담률은 고부담국가와 어떤 차이

3) Esping-Andersen, G.(1996). Welfare states without work: the impasse of labour shedding and familialism in Continental European social policy. In Esping-Andersen, G.(Eds.). Welfare states in transition: national adaptation in global economics. pp.55~87. London: Sage.

4) Bloom, D. E., Canning, D. and Fink, G.(2010). Implications of population ageing for economic growth.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6(4), pp.583~612.

5) 일반정부 순지출은 중앙정부의 순지출과 지방정부의 순지출을 합한 수치임. 일반정부의 지출과 수입은 UN의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기초하여 작성되고 일반정부지출항목은 이차비용, 근로자임금, 중간재구입, 총고정자본형성, 현물사회급여, 현금사회급여 등이 포함되는데 일반정부의 10개 기능별로 일반공공서비스, 국방, 공공질서와 안전 경제업무, 환경보호, 주거와 지역시설 의료, 오락·문화·종교, 교육, 사회적보호 등으로 구분됨. 일반정부수입은 크게 조세수입, 사회보장기여금, 그리고 세외수입 등으로 구분되며 세외수입은 재산수입과 경상이전수입 등이 포함됨.

접을 보이는데 이를 가능해 보기 위해서 분석지표로 추가하였다.

- ⑤ 국가채무(GDP 대비%, 2010년 기준)
- ⑥ 일반정부순지출(GDP 대비%, 1995~2010년 평균)
- ⑦ 국민부담률(GDP 대비%, 1995~2010년 평균)

3) 사회보장재정지표

사회보장재정지표로는 공공사회복지지출수준, 사회보험기여금이 일반정부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공공사회복지지출(SOCX)이 일반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사용하였다. 사회보장재정지표는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을 거시적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 변수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공공사회지출수준이 높은 국가인지, 둘째, 사회보험수입의 비중이 높은 국가인지(즉, 사회보험중심의 국가인지), 마지막으로 정부지출에서 복지지출의 비중이 높은 국가인지 아니면 복지 이외의 영역에 지출을 더 많이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 ⑧ 공공사회복지지출(SOCX-Public: Social Expenditure-public)
OECD는 사회복지지출을 지출주체를 기준

으로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고, 민간은 다시 법정민간과 자발적민간으로 세분화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사회복지지출⁶⁾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⁷⁾

- ⑨ 사회보험기여금수입이 일반정부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사회보험기여금수입이 일반정부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사회보험위주로 사회보장제도가 운영되는 국가일 것이므로,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분석에 포함시켰다. 기존의 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사회보험 중심인지의 여부는 그 나라의 합계출산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사회보험에 더 많은 강조를 두는 나라들에서 합계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⁸⁾

- ⑩ 공공사회복지지출(SOCX-Public)의 일반정부지출비중

공공사회복지지출(SOCX-public)이 일반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였다. 이 비중이 50%를 넘는 경우, 복지에 정부지출의 비중을 더 두는 국가군으로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였으며 대체적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일반정부지출의 45~55%의 범위 내에 있다.

6) OECD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실업, 주거, 기타의 9개 기능으로 구분됨.

7) OECD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UN의 국민계정(System of National Account)의 일반정부의 복지지출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음.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정부의 복지지출에는 주택부분지출이 SOCX보다 과다 계상되는 반면 건강보험지출은 정부가 부담하는 부분만 포함되어 과소 계상되고 있음.

8) Esping-Andersen, G. op. cit.
McDonald, P.(2000). Gender equality, social institutions and the future of fertility.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4(3), pp.1071~1100.

표 1. 국가별 주요 재정지표

| 국가 | 국가채무 | 일반정부순지출 ¹⁾ | 공공사회복지지출/ 일반정부지출 | 사회보험부담/ 국민부담 | 공공사회복지지출 (SOCX) | 국민부담률 |
|-------|---------|-----------------------|---------------------|-----------------|--------------------|--------------|
| | (2010년) | (1995~2010년) | (1995~2010년) | (1995~2010년) | (1995~2010년) | (1995~2010년) |
| | GDP대비% | 연평균GDP대비% | 연평균비중 | 연평균비중 | 연평균GDP대비% | 연평균GDP대비% |
| 호주 | 39.52 | 0.85 | 0.48 | 0 | 16.87 | 29.01 |
| 벨기에 | 99.63 | 1.61 | 0.53 | 0.35 | 26.61 | 45.96 |
| 캐나다 | 103.8 | 0.36 | 0.43 | 0.14 | 17.47 | 33.97 |
| 스웨덴 | 48.83 | -0.07 | 0.52 | 0.23 | 29.38 | 48.79 |
| 프랑스 | 95.54 | 3.59 | 0.56 | 0.41 | 29.91 | 45.17 |
| 네덜란드 | 71.89 | 1.74 | 0.45 | 0.39 | 21.48 | 39.2 |
| 스페인 | 68.2 | 2.69 | 0.53 | 0.37 | 21.57 | 34.82 |
| 영국 | 81.62 | 3.24 | 0.48 | 0.21 | 20.25 | 36.19 |
| 슬로베니아 | 47.58 | 3.07 | 0.44 | 0.39 | 20.2 | 37.49 |
| 오스트리아 | 78 | 2.51 | 0.52 | 0.37 | 27.08 | 44.35 |
| 아일랜드 | 87.31 | 2.26 | 0.44 | 0.20 | 16.94 | 31.54 |
| 독일 | 86.02 | 2.83 | 0.56 | 0.45 | 26.74 | 40.46 |
| 스위스 | 46.06 | 0.74 | 0.55 | 0.25 | 18.95 | 28.19 |
| 이탈리아 | 130.76 | 3.65 | 0.49 | 0.31 | 24.09 | 41.67 |
| 핀란드 | 56.97 | -1.54 | 0.51 | 0.28 | 26.76 | 44.53 |
| 미국 | 115.34 | 4.26 | 0.44 | 0.26 | 16.09 | 26.58 |
| 폴란드 | 62.22 | 4.62 | 0.48 | 0.36 | 21.51 | 33.93 |
| 체코 | 44.72 | 4.51 | 0.43 | 0.44 | 18.84 | 34.51 |
| 슬로바키아 | 45.87 | 5.63 | 0.41 | 0.41 | 17.52 | 33.09 |
| 포르투갈 | 98.14 | 4.89 | 0.47 | 0.33 | 20.69 | 33.56 |
| 덴마크 | 53.14 | -0.86 | 0.5 | 0.04 | 27.76 | 47.92 |

주: 1) OECD SNA상의 Net borrowing/net lending으로 양(+)은 재정적자를 의미
 2) 룩셈부르크는 재정건전성 등의 지표의 자료제한으로 인해 군집분석에서 제외되었음.
 자료: OECD, Stat.

2. 사회적 성과를 기준으로 한 군집분석

군집분석은 재정건전성과 사회적 성과를 기준으로 2개의 경우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성과는 출산율과 여성경제

활동율을 군집변수로 사용하는 경우와 빈곤관련변수인 지니계수와 중위소득 50% 기준의 빈곤율을 사용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적 성과를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 두 변수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국가군, 두 변수

표 2. 국가별 주요 사회지표

| 국가 | 출산율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빈곤율(중위50%) | 지니계수 | GDP | 인구 |
|---------------------|--------------|--------------|------------|---------|--------------|---------|
| | (2006~2010년) | (2006~2010년) | (2010년) | (2010년) | (2006~2010년) | (2010년) |
| | 연평균 명 | 연평균% | % | | 연평균 | 천명 |
| 호주 | 1.9 | 70.84 | 0.144 | 0.33 | 39465 | 22032 |
| 벨기에 | 1.84 | 60.96 | 0.097 | 0.26 | 36428 | 10920 |
| 캐나다 | 1.64 | 74 | 0.119 | 0.32 | 39115 | 34126 |
| 스웨덴 | 1.91 | 77.44 | 0.091 | 0.27 | 38189 | 9378 |
| 프랑스 | 1.99 | 66.65 | 0.079 | 0.3 | 33545 | 62917 |
| 네덜란드 | 1.76 | 72.83 | 0.075 | 0.29 | 40940 | 16615 |
| 스페인 | 1.4 | 63.26 | 0.154 | 0.34 | 31929 | 46072 |
| 영국 | 1.92 | 70.03 | 0.1 | 0.34 | 35609 | 61344 |
| 슬로베니아 | 1.45 | 68.95 | 0.092 | 0.25 | 27147 | 2049 |
| 오스트리아 | 1.41 | 69.06 | 0.081 | 0.27 | 38887 | 8389 |
| 아일랜드 | 2.03 | 63.5 | 0.09 | 0.33 | 42145 | 4556 |
| 독일 | 1.37 | 70.36 | 0.088 | 0.29 | 36100 | 81715 |
| 스위스 | 1.48 | 81.49 | 0.095 | 0.3 | 45626 | 7827 |
| 이탈리아 | 1.39 | 51.22 | 0.13 | 0.32 | 32244 | 60051 |
| 핀란드 | 1.85 | 74.04 | 0.073 | 0.26 | 35966 | 5363 |
| 룩셈부르크 ²⁾ | 1.61 | 94.46 | 0.072 | 0.27 | 82022 | 506 |
| 미국 | 2.05 | 69.57 | 0.174 | 0.38 | 47584 | 309326 |
| 폴란드 | 1.35 | 56.34 | 0.11 | 0.31 | 17806 | 38517 |
| 체코 | 1.45 | 62.28 | 0.058 | 0.26 | 25259 | 10517 |
| 슬로바키아 | 1.32 | 61.64 | 0.078 | 0.26 | 21802 | 5391 |
| 포르투갈 | 1.35 | 73.25 | 0.114 | 0.34 | 24587 | 10573 |
| 덴마크 | 1.86 | 77.01 | 0.06 | 0.25 | 38631 | 5547 |

자료: OECD, Stat.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는 국가군, 그리고 두 변수 중 한 변수만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군으로 구분된다.

1) 사회적 성과-1 기준 군집분석: 출산율 (2006~2010년)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2006~2010년)

(1) 두 변수 모두 수치가 높은 국가군

<표 3>의 군집 4와 6은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두 변수 모두 수치가 높은 국가군으로 이들 국가의 재정건전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정부 순지출은 GDP 대비 -0.074%로 일반정부의 수

입과 지출이 균형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부담률 또한 GDP 대비 43.2%로 평균보다 크게 높다. 그리고 복지지출수준도 GDP대비 24.6%로 고 부담/고복지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사회보험 부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두 변수 모두 상대적으로 수치가 낮은 국가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두 변수 모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군의 경우 일반정부순지출은 GDP 대비 4.2%로 재정건전성이 취약하고, 국민부담수준도 중간수준이며, 복지지출 또한 중복지에 해당된다. 사회보장재정은 사회보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표 3. 사회적 성과-1 기준 군집분석: 출산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구분 | 집단 | 1 | 2 | 3 | 4 | 5 | 6 | 21개국 평균 |
|------------|------------------------------------|--------------------------------------|-------------------------------------|-------------|-------------|--------------------|-------------------|---------|
| 군집 변수 | 출산율(TFR) (명, 2006~2010년 평균) | 1.96 | 1.41 | 1.37 | 1.70 | 1.39 | 1.87 | 1.65 |
|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2006~2010년 평균) | 66.93 | 72.62 | 53.78 | 73.42 | 62.39 | 76.16 | 68.32 |
| | 군집별 국가 | 프랑스 벨기에 미국 영국 호주 아일랜드 | 스위스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독일 | 폴란드 이탈리아 | 캐나다 네덜란드 | 체코 슬로바키아 스페인 |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 |
| 재정 건전성 지표 | 일반정부순지출 (GDP대비%, 1995~2010년 평균) | 2.64 | 2.81 | 4.14 | 1.05 | 4.28 | -0.82 | 2.41 |
| | 국가채무(GDP대비%, 2010년) | 86.49 | 71.16 | 96.49 | 87.85 | 52.93 | 52.98 | 74.34 |
| | 국민부담률 (GDP대비%, 1995~2010년 평균) | 35.74 | 36.90 | 37.80 | 36.58 | 34.14 | 47.68 | 38.14 |
| 사회성과 지표 | 빈곤율(중위소득50%기준) (%, 2010년) | 0.11 | 0.09 | 0.12 | 0.10 | 0.10 | 0.07 | 0.10 |
| | 지니계수(2010년) | 0.32 | 0.29 | 0.32 | 0.31 | 0.29 | 0.26 | 0.30 |
| 사회보장 재정 지표 | SOCX/일반정부지출 (%, 1995~2010년 평균) | 49.0 | 51.0 | 49.0 | 44.0 | 46.0 | 51.0 | 49.0 |
| | 사회보험부담/국민부담 (%, 1995~2010년 평균) | 0.24 | 0.36 | 0.34 | 0.26 | 0.41 | 0.19 | 0.3 |
| | SOCX (GDP대비%, 1995~2010년 평균) | 21.11 | 22.73 | 22.80 | 19.48 | 19.31 | 27.97 | 22.22 |

자료: OECD, Stat.

(3) 두 변수 중 한 변수만 상대적으로 우수하거나 열위에 있는 국가

출산율만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군의 재정건전성을 살펴보면 일반정부순지출은 GDP대비 2.63%로 전체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부담률은 전체평균에 근접하는 수준이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전체평균보다 낮아 고부담/중복지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만 상대적으로 우수한 국가군의 경우 재정건전성은 출산율만 우수한

국가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부담률은 전체평균보다 낮다. 그리고 공공사회복지지출은 평균에 근접하여 전반적으로 중부담/중복지인 것으로 평가된다.

2) 사회적 성과-2 기준 군집분석: 지니계수 (2010년)와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 (2010년)

사회적 성과를 빈곤지표로 평가하는 경우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집단과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집단으로 양분된다.

표 4. 군집별 재정건전성 및 사회보장재정의 특성

| 군집분류 | 재정건전성 | | | 사회보장재정 | | | |
|-----------|-----------|-------------|---------------------|----------------------|---------------|---------------|-------------|
| | 국가 | 일반정부순지출 | 국민부담률 ¹⁾ | 복지지출수준 ²⁾ | 사회보험부담 / 국민부담 | SOCX / 일반정부지출 | |
| | | (GDP대비%) | (GDP대비%) | (GDP대비%) | (%) | (%) | |
| 사회적 성과-1 | 상위 (4,6) | 덴마크 | -0.86 | 고부담 | 고복지 | 4 | 50 |
| | | 핀란드 | -1.54 | 고부담 | 고복지 | 28 | 51 |
| | | 스웨덴 | -0.07 | 고부담 | 고복지 | 23 | 52 |
| | | 캐나다 | 0.36 | 중부담 | 중복지 | 14 | 43 |
| | | 네덜란드 | 1.74 | 고부담 | 중복지 | 39 | 45 |
| | 평균 | | -0.074 | 43.2 | 24.57 | 21.6 | 48.2 |
| | 하위 (3,5) | 이탈리아 | 3.65 | 고부담 | 고복지 | 31 | 49 |
| | | 폴란드 | 4.62 | 중부담 | 중복지 | 36 | 48 |
| | | 체코 | 4.51 | 중부담 | 저복지 | 44 | 43 |
| | | 슬로바키아 | 5.63 | 중부담 | 저복지 | 41 | 41 |
| 스페인 | | 2.69 | 중부담 | 중복지 | 37 | 53 | |
| 평균 | | 4.22 | 35.6 | 20.70 | 37.8 | 46.8 | |

주: 1) 국민부담률은 39.2~49.7% 범위를 고부담국(9개국)으로 분류하고 33~37%이면 중부담국(8개국)으로 그리고 26~31% 이면 저부담국(4개국)으로 분류하였음.

2) 공공사회복지지출이 GDP대비 24.09~29.9% 범위이면 고복지국(8개국)으로 분류하였고, 20.2~21.5% 범위이면 중복지국가(6개국) 16~18.9% 범위이면 저복지국(7개국)으로 분류하였음.

자료: OECD, Stat.

표 5. 사회적 성과-1 변수 중 한 변수만 상대적으로 우수한 국가군

| 군집분류 | | 재정건전성 | | | 사회보장재정 | | |
|----------|---------------------|-----------|-------------|---------------------|----------------------|---------------|---------------|
| | | 국가 | 일반정부순지출 | 국민부담률 ¹⁾ | 복지지출수준 ²⁾ | 사회보험부담 / 국민부담 | SOCX / 일반정부지출 |
| | | | (GDP대비%) | (GDP대비%) | (GDP대비%) | (%) | (%) |
| 사회적 성과-1 | 출산율만 상위 (1) | 프랑스 | 3.59 | 고부담 | 고복지 | 41 | 56 |
| | | 벨기에 | 1.61 | 고부담 | 고복지 | 35 | 53 |
| | | 미국 | 4.26 | 저부담 | 저복지 | 26 | 44 |
| | | 영국 | 3.24 | 중부담 | 중복지 | 21 | 48 |
| | | 호주 | 0.85 | 저부담 | 저복지 | 0 | 48 |
| | | 아일랜드 | 2.26 | 저부담 | 저복지 | 20 | 44 |
| | | 평균 | 2.63 | 35.74 | 21.11 | 23.8 | 48.8 |
|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만 상위 (2) | 스위스 | 0.74 | 저부담 | 저복지 | 25 | 55 |
| | | 슬로베니아 | 3.07 | 중부담 | 중복지 | 39 | 44 |
| | | 오스트리아 | 2.51 | 고부담 | 고복지 | 37 | 52 |
| | | 포르투갈 | 4.89 | 중부담 | 중복지 | 33 | 47 |
| | | 독일 | 2.83 | 고부담 | 고복지 | 45 | 56 |
| | | 평균 | 2.80 | 36.9 | 22.73 | 35.8 | 50.8 |

주: 1) 국민부담률은 39.2~49.7% 범위를 고부담국(9개국)으로 분류하고 33~37%이면 중부담국(8개국)으로 그리고 26~31% 이면 저부담국(4개국)으로 분류하였음.

2) 공공사회복지지출이 GDP대비 24.09~29.9% 범위이면 고복지국(8개국)으로 분류하였고, 20.2~21.5% 범위이면 중복지국(6개국) 16~18.9% 범위이면 저복지국(7개국)으로 분류하였음.

자료: OECD, Stat.

(1) 빈곤관련 사회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

<표 6>의 군집 2, 3, 6은 지니계수와 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빈곤관련 사회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이다. 이들 국가의 재정건전성은 일반정부순지출이 GDP 대비 1.98%로 전체평균 보다 낮고, 국민부담률은 GDP 대비 40.9%로 전체평균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저복지 국가가 포함되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고부담/고복지 국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보

험재정의 비중이 33%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빈곤관련 사회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

<표 6>의 군집 1, 4, 5는 지니계수와 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빈곤관련 사회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군이다. 이들 국가는 일반정부순지출이 GDP 대비 2.98%로 상대적으로 높고, 복지유형은 전반적으로 중부담/중복지국가가 많이 포함되어

표 6. 사회적 성과-2 기준 군집분석: 지니계수(2010)와 중위소득 50% 빈곤율(2010)

| 구분 | 집단 | 1 | 2 | 3 | 4 | 5 | 6 | 21개국 평균 |
|------------|-----------------------------------|-----------|--------------------------|---------------------------------------|--|--------|------------------|---------|
| 군집 변수 | 지니계수(2010년) | 0.34 | 0.30 | 0.26 | 0.33 | 0.38 | 0.26 | 0.30 |
| | 중위소득50%(2010년) | 0.15 | 0.08 | 0.09 | 0.11 | 0.17 | 0.06 | 0.10 |
| | 군집별 국가 | 스페인 호주 | 프랑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웨덴 | 포르투갈 폴란드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 미국 | 체코 덴마크 핀란드 | |
| 재정 건전성 지표 | 일반정부순지출 (GDP대비%, 1995~2010년 평균) | 1.77 | 2.23 | 2.55 | 3.17 | 4.26 | 0.70 | 2.41 |
| | 국가채무(GDP대비%, 2010년) | 53.86 | 74.88 | 63.98 | 93.98 | 115.34 | 51.61 | 74.34 |
| | 국민부담률 (GDP대비 %, 1995~2010년 평균) | 31.92 | 38.26 | 42.03 | 35.14 | 26.58 | 42.92 | 37.77 |
| 사회성과 지표 | 출산율(TFR) (명, 2006~2010년 평균) | 1.65 | 1.65 | 1.59 | 1.61 | 2.05 | 1.72 | 1.65 |
|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 2006~2010년 평균) | 67.05 | 72.83 | 67.61 | 64.72 | 69.57 | 71.11 | 68.32 |
| 사회보장 재정 지표 | SOCX/일반정부지출 (% , 1995~2010년 평균) | 0.51 | 0.53 | 0.48 | 0.47 | 0.44 | 0.48 | 0.49 |
| | 사회보험부담/일반정부지출 (% , 1995~2010년 평균) | 0.19 | 0.37 | 0.35 | 0.26 | 0.26 | 0.26 | 0.30 |
| | SOCX (GDP대비%, 1995~2010년 평균) | 19.22 | 24.27 | 24.16 | 20.16 | 16.09 | 24.45 | 22.22 |

자료: OECD, Stat.

있다. 사회보험재정의 비중이 전체 일반정부지출 중 34.6%로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부담율과 일반정부순지출의 재정건전성을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하는 경우 크게 3개 집단으로 재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재정건전성 기준 군집분석: 국민부담률(1995~2010년)과 일반정부순지출(1995~2010년)

1) 재정건전성 상위집단

재정건전성 상위집단은 일반정부순지출이 음(-)이거나 GDP대비 1.0% 미만인 국가가 해당된다. 재정건전성이 상위에 속하는 국가의 사

표 7. 사회적 성과-2 기준 군집분석: 지니계수(2010년)와 중위소득 50% 빈곤율(2010년)

| 군집분류 | | 재정건전성 | | | 사회보장재정 | | |
|-----------|-------------|-------------|--------------|---------------------|----------------------|---------------|---------------|
| | | 국가 | 일반정부순지출 | 국민부담률 ¹⁾ | 복지지출수준 ²⁾ | 사회보험부담 / 국민부담 | SOCX / 일반정부지출 |
| | | | (GDP대비%) | (GDP대비%) | (GDP대비%) | (%) | (%) |
| 사회적 성과-2 | 상위 (2,3,6) | 체코 | 4.51 | 중부담 | 저복지 | 44 | 43 |
| | | 덴마크 | -0.86 | 고부담 | 고복지 | 4 | 50 |
| | | 핀란드 | -1.54 | 고부담 | 고복지 | 28 | 51 |
| | | 슬로바니아 | 3.07 | 중부담 | 중복지 | 39 | 44 |
| | | 슬로바키아 | 5.63 | 중부담 | 저복지 | 41 | 41 |
| | | 벨기에 | 1.61 | 고부담 | 고복지 | 35 | 53 |
| | | 오스트리아 | 2.51 | 고부담 | 고복지 | 37 | 52 |
| | | 스웨덴 | -0.07 | 고부담 | 고복지 | 23 | 52 |
| | | 프랑스 | 3.59 | 고부담 | 고복지 | 41 | 56 |
| | | 독일 | 2.83 | 중부담 | 고복지 | 45 | 56 |
| | | 스위스 | 0.74 | 저부담 | 저복지 | 25 | 55 |
| | | 네덜란드 | 1.74 | 고부담 | 중복지 | 39 | 45 |
| | 평균 | 1.98 | 40.9 | 24.26 | 33 | 49.8 | |
| | 하위 (1,4,5) | 미국 | 4.26 | 저부담 | 저복지 | 26 | 44 |
| | | 포르투갈 | 4.89 | 중부담 | 중복지 | 33 | 47 |
| | | 폴란드 | 4.62 | 중부담 | 중복지 | 36 | 48 |
| | | 캐나다 | 0.36 | 중부담 | 중복지 | 16 | 43 |
| | | 영국 | 3.24 | 중부담 | 중복지 | 21 | 48 |
| | | 아일랜드 | 2.26 | 저부담 | 저복지 | 20 | 44 |
| 이탈리아 | | 3.65 | 고부담 | 중복지 | 31 | 49 | |
| 스페인 | | 2.69 | 중부담 | 중복지 | 37 | 53 | |
| 호주 | 0.85 | 저부담 | 저복지 | 0 | 48 | | |
| 평균 | 2.98 | 33.4 | 19.49 | 24 | 47.1 | | |

주: 1) 국민부담률은 GDP대비 39.2~49.7% 범위를 고부담국(9개국)으로 분류하고, 33~37%이면 중부담국(8개국)으로 그리고 26~31%이면 저부담국(4개국)으로 분류

2) 공공사회복지지출이 GDP대비 24.09~29.9% 범위이면 고복지국(8개국)으로 분류하였고, 20.2~21.5% 범위이면 중복지국(6개국), 16~18.9% 범위이면 저복지국(7개국)으로 분류하였음.

자료: OECD, Stat.

회적 성과는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국가의 국민부담에서 사회보험부담비중이 18.4%로 매우 낮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고부담/고복지군에 속한다.

2) 재정건전성 중위집단

재정건전성 중위집단은 일반정부순지출과 국민부담률이 21개국 평균에 근접한 국가군으로 분류하였다. 재정건전성이 중위에 속하는 국

가의 사회적 성과는 모든 지표에 있어서 중위수 준임을 알 수 있다. 국민부담에서 사회보험의 비중이 34.4%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대체적으로 중부담/중복지군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다.

표 8. 재정건전성 기준 군집분석

| 구분 | 집단 | 1 | 2 | 3 | 4 | 5 | 6 | 21개국 평균 |
|------------|------------------------------------|--------|----------------------|--|-------------------------|----------------------------|-------------------|---------|
| 군집 변수 | 일반정부순지출 (GDP대비%, 1995~2010년 평균) | 4.26 | 2.78 | 2.87 | 0.89 | 4.91 | -0.82 | 2.40 |
| | 국민부담률 (GDP대비%, 1995~2010년 평균) | 26.58 | 40.35 | 38.38 | 34.2 | 33.77 | 47.68 | 37.7 |
| | 군집별 국가 | 미국 | 프랑스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 네덜란드 영국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 스위스 캐나다 호주 벨기에 | 체코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폴란드 |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 |
| 재정건전성 지표 | 국가채무 (GDP대비%, 2010년) | 115.3 | 86.9 | 81.0 | 72.2 | 62.7 | 52.9 | 74.34 |
| 사회성과 지표 | 출산율(TFR) (명, 2006~2010년 평균) | 2.05 | 1.81 | 1.55 | 1.71 | 1.37 | 1.87 | 1.65 |
|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2006~2010년 평균) | 69.57 | 66.4 | 66.11 | 71.8 | 63.38 | 76.16 | 68.32 |
| | 빈곤율(중위소득50%기준) (%, 2010년) | 0.17 | 0.083 | 0.106 | 0.112 | 0.09 | 0.074 | 0.10 |
| | 지니계수(2010년) | 0.38 | 0.30 | 0.30 | 0.30 | 0.29 | 0.26 | 0.30 |
| 사회보장 재정 지표 | SOCX/일반정부지출 (%, 1995~2010년 평균) | 0.44 | 0.50 | 0.49 | 0.49 | 0.45 | 0.51 | 0.49 |
| | 사회보험부담/국민부담 (%, 1995~2010년 평균) | 0.26 | 0.32 | 0.35 | 0.185 | 0.39 | 0.19 | 0.30 |
| | SOCX (GDP대비%, 1995~2009년 평균) | 16.09 | 24.6 | 22.38 | 19.97 | 19.64 | 27.96 | 22.22 |
| 기타 지표 | 인구(2010년, 백만) | 309 | 25 | 44 | 18 | 16 | 6.7 | 387 |
| | 1인당 GDP (US \$, 2006~2010년 평균) | 47,584 | 38,192 | 33,994 | 40,158 | 22,363 | 37,595 | 34,714 |

자료: OECD, Stat.

3) 재정건전성 하위집단

재정건전성 하위집단은 일반정부순지출이 분석대상 21개국 평균의 2배에 근접하면서 (GDP 대비 4.26~4.78%) 국민부담률이 21개국

평균보다 낮은 국가로 분류하였다. 다른 두 국가군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열악하면서 사회적 성과지표도 모든 영역에서 가장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국민부담에서 사회보험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36%로 가장 높으며, 대체적으로 중

표 9. 재정건전성, 사회적 성과, 사회보장재정의 구분

| 군집분류 | 사회적 성과-1 | | | 사회적 성과-2 | | 사회보장재정지표 | | |
|-------|-----------|-------------|--------------|--------------|--------------|------------------|-------------------|-------------|
| | 국가 | 출산율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지니계수 | 중위소득 50% | 부담/지출 (GDP대비%) | 사회보험부담 /국민부담 (%) | |
| | | (명) | (%) | | (%) | | | |
| 재정건전성 | 상위 (4,6) | 덴마크 | 1.86 | 77.0 | 0.25 | 0.06 | 고부담/고복지 | 4 |
| | | 핀란드 | 1.85 | 74.04 | 0.26 | 0.073 | 고부담/고복지 | 28 |
| | | 스웨덴 | 1.91 | 77.44 | 0.27 | 0.091 | 고부담/고복지 | 23 |
| | | 호주 | 1.90 | 70.84 | 0.33 | 0.144 | 저부담/저복지 | 0 |
| | | 캐나다 | 1.64 | 74.0 | 0.32 | 0.119 | 중부담/중복지 | 14 |
| | | 벨기에 | 1.84 | 60.96 | 0.26 | 0.097 | 고부담/고복지 | 35 |
| | | 스위스 | 1.48 | 81.49 | 0.30 | 0.095 | 저부담/저복지 | 25 |
| | | 평균 | 1.78 | 73.68 | 0.28 | 0.097 | 40.0/23.4 | 18.4 |
| | 중위 (2,3) | 네덜란드 | 1.76 | 72.83 | 0.29 | 0.075 | 고부담/중복지 | 39 |
| | | 영국 | 1.92 | 70.03 | 0.34 | 0.10 | 중부담/중복지 | 21 |
| | | 프랑스 | 1.99 | 66.65 | 0.30 | 0.079 | 고부담/고복지 | 41 |
| | | 슬로베니아 | 1.45 | 68.95 | 0.25 | 0.092 | 중부담/중복지 | 39 |
| | | 이탈리아 | 1.39 | 51.22 | 0.32 | 0.13 | 고부담/고복지 | 31 |
| | | 독일 | 1.37 | 70.36 | 0.29 | 0.088 | 고부담/고복지 | 45 |
| | | 스페인 | 1.40 | 63.26 | 0.34 | 0.154 | 중부담/중복지 | 37 |
| | | 아일랜드 | 2.03 | 63.50 | 0.33 | 0.09 | 저부담/저복지 | 20 |
| | | 오스트리아 | 1.41 | 69.06 | 0.27 | 0.081 | 고부담/고복지 | 37 |
| | 평균 | 1.63 | 66.20 | 0.30 | 0.098 | 39.0/23.1 | 34.4 | |
| | 하위 (1,5) | 체코 | 1.45 | 62.28 | 0.26 | 0.058 | 중부담/저복지 | 44 |
| | | 포르투갈 | 1.35 | 73.25 | 0.34 | 0.114 | 중부담/중복지 | 33 |
| | | 미국 | 2.05 | 69.57 | 0.38 | 0.174 | 저부담/저복지 | 26 |
| | | 슬로바키아 | 1.32 | 61.64 | 0.26 | 0.078 | 중부담/저복지 | 41 |
| | | 폴란드 | 1.35 | 56.34 | 0.31 | 0.110 | 중부담/중복지 | 36 |
| | | 평균 | 1.50 | 64.61 | 0.31 | 0.106 | 32.2/18.93 | 36.0 |

자료: OECD, Stat.

부담/저복지국가로 분류된다.

4. 결론

군집분석결과 재정건전성과 사회적 성과의 집단별 순위는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10>은 재정건전성과 사회적 성과의 집단별 순위와 인구규모 및 1인당 GDP로 모든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군집에 있는 국가는 인구규모가 적으며 1인당 국민소득수준도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재정건전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사회적 성과도 동시에 양호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들 국가는 사회보험비중보다는 일반조세제도에 의한 재원으로 사회보장재정을 충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

(Esping-Andersen, 1996; McDonald, 2000)과 잘 부합되는 결과로서, 남성과 정규직 중심의 사회보장제도가 좋은 사회적 성과(합계출산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빈곤율)를 산출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부담과 지출이 모두 높은 고부담/고복지군에 속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고부담/고복지국가가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높다는 것은 사회보험 재정이 일반재정(조세)보다 수입과 지출이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고부담/고복지국가의 사회적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나타나는 것은 복지지출수준이 출산율 제고 또는 빈곤완화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출과 부담의 균형이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여 사회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보건복지

표 10. 재정 · 사회적 성과와 인구 및 1인당 GDP

| 재정 및 사회적 성과 | 국가군 | 평균 인구규모(2010) (백만) | 평균 1인당 GDP(06~10 평균) (US \$) |
|-------------|--|-----------------------|---------------------------------|
| 상위 |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호주, 캐나다, 벨기에, 스위스 | 13.9 | 39,295 |
| 중위 |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 38.1 | 35,394 |
| 하위 | 체코, 포르투갈, 미국, 슬로바키아, 폴란드 | 74.8(25.8) | 27,407 |

주: 괄호()는 미국(309.3백만)을 outlier 처리하여 제외하는 경우의 평균 인구규모임.
자료: OECD, Stat.